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2 차 , 계시록의 새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요한 계시록의 새 언약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12번째 세션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새 언약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신약의 구조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신약에서 새 언약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성취된 새 언약의 시작, 이미라는 측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살펴본 한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완성,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있고,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이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완성된 새 창조의 맥락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 땅에서, 새 창조에서, 새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봅니다. 둘째,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계시록 21장 3절이 에스겔의 새 언약의 맥락에서 새 언약인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을 인용하거나 직접 암시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미 시작된 새 언약의 맥락에서 레위기 26장과 함께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이 에스겔 37장에서 같은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레위기 26장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은 완성된 새 창조의 맥락에서 에스겔 36, 37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물 속에서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인식했듯이, 새로운 언약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종말론적 성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요한은 사람들 자체, 새 예루살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 새 예루살렘 자체,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을 묘사하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나머지 부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유대인의 귀에는 다소 놀라운, 21장 22절에서 다소 놀라운 진술을 보았고, 저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완성된 새 언약 관계로 거하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시작된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거쳐,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 창조 안에서 그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 관계에서 절정에 달하고 완성된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새 언약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새 언약이 더 광범위하게 근본적이거나 언약 자체임을 보았습니다.

언약은 주요 주제나 중심은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방식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성취와 표현을 가져오는 일종의 포괄적인 언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모든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의 역사적 언약 거래의 시리즈는 이제 새 언약의 수립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되고 지금은 그의 백성에게까지 확장되지만,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 창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된 새 언약 거처를 예상합니다.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적절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핵심으로 여겨져야 하며, 다시 말해서, 아니면 신약 신학의 지배적인 주제의 중심이 아니라면, 성경 신학과 신약 신학에서 핵심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제가 새로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도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주제를 간략하게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펴볼 많은 텍스트들은 다른 주제들과 관련하여 이미 발전시킨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출발점은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백성인 아담과 이브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그의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는 단순히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구약성경을 조사할 때, 또는 창세기 1, 2, 3을 조사할 때, 이

과정의 아주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와 유배의 패턴을 시작했고, 그것은 나중에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에 불순종하고, 언약 관계에 불순종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창조하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거주하고 거할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거주와 관련이 있고,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재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아주 간략하게 다음 중단점은 다시 한번 홍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지 만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누군가를 보존하심으로써 창조물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시고, 결국 관계를 맺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음의 중요한 시작점은 창세기 12 장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 장과 2장에서 인류에 대한 의도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한 가지는 아담과 이브와 모든 창조물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효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나라가 생겨나서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거나 선택되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고 백성을 부르거나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여 그의 백성, 그의 귀중한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애굽 왕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노예의 땅에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신의 소중한 소유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셨고, 우리는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갈 때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히 적절한 출발점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의 출발점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 확실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선택된 소유이며,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중요한 사건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일 것입니다. 탈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의 백성을 택하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신명기 7

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그의 소중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데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멍에 아래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그들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뻗은 팔과 강력한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의 일부가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떼려낼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멍에 아래서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은 구원, 새로운 탈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전개될 다른 주제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독특한 언약 관계, 그들이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동기인 듯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 서사를 볼 때 일어나는 일을 발견합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아담으로 기능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를 인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신약 학자 NT Wright가 그의 글 중 일부에서 이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해야 했던 일,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고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땅에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창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확장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 그에게서 나올 위대한 민족을 택하심으로써 실현되고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에 대한 본래의 의도를 재확립하고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아담과 이브와 매우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루고 다른 모든 민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많은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에게 빛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퍼뜨려야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유배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동산, 땅, 성전에서 쫓겨나고 유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했으며, 성전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차이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면전이 실제로 성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면전은 심판의 표징으로 성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아담으로 기능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공식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 공식은 제가 출애굽기 6장에서 이미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 공식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의도를 가장 의미 있게 표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약 공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께 속할 사람들을 모으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 공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언약의 핵심이며, 이 언약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는 지금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백성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언약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식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하여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당신은 거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관계의 그들 편에서 그 노력에 실패했고 죄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에 대한 그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차린 한 가지는 이것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 특히 신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광범위하게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세요. 저는 이미 이것을 언급했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것과 백성을 세우려는 그의 의도는 전체 창조의 맥락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광범위하게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모든 인류에서 스스로를 좁힙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을 시작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확대되어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다시 넓게 끝나서 지구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게 시작해서 좁아지고 다시 넓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맥락에서 아담과 이브로 광범위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좁힙니다.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열방과 모든 열방의 빛이 되어 실제로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약속과 의도를 구체화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넓어질 것입니다. 모래시계처럼, 처음에는 넓게

시작해서 좁아지고, 그다음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다시 한 번 좁아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너무 넓고 좁고 넓습니다. 아담과 이브, 창조물, 좁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넓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포용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계획의 일부가 하나님의 백성도 이미 아직은 아닌 차원을 공유하고, 또한 성취에 참여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발전에서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의 일부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관련하여 제가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곤경을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고 추방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그들도 죄를 짓고 실패하며 추방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추방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와 이방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을 온 땅에 퍼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언서에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 중 일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작할 곳 중 하나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림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모두 불순종으로 인해 유배되었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으며,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에서 회복될 것을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인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고합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유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책의 후반부 중 일부는 그들이 유배되는 모습을 그려내지만, 유배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부분에서, 2장, 바로 처음에, 이사야가 유다 백성의 반역과 죄악을 질책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1장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련의 심판이나 비판입니다. 그 가운데, 2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2장, 2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전의 산이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산들 위로 높이 들릴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는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는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리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치는 갈고리를 만들 것이다.

나라들이 나라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더 이상 전쟁을 위해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후손들이여, 오라,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오는 나라들을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본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반역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 지금, 그의 책의 맨 처음에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회복될 때 희망, 회복,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열방이 주님의 길을 배우러 오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방금 에스겔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또 다른 본문으로, 40장부터 책의 끝까지, 특히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배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의 땅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나 43절 5절과 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그들을 내어주라, 남쪽에 이르기를, 그들을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내가 형성하고 만든 자. 눈이 있으나 눈먼 자와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인 자를 인도하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배에서 데려오시고 회복의 행위로 땅으로 데려오실 자녀 또는 아들로 묘사됩니다.

49, 49의 다른 텍스트 중 하나, 이사야, 여전히 이사야의 책임입니다. 49장 8절, 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땅을 회복하고 황무한 그 기업을 다시 분배하리라.

포로들에게 말하여, 나와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자유하라. 그들은 길가에서 먹이를 먹고, 모든 척박한 언덕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그들은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사막의 열기나 태양이 그들을 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고 물샘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내 모든 고속도로를 들어올릴 것이다. 보라, 그들은 멀리서 올 것이다. 어떤 이는 북쪽에서, 어떤 이는 서쪽에서, 어떤 이는 아스완 지방에서 올 것이다.

아, 기뻐 외쳐라! 땅아, 기뻐하라! 산아, 노래하여 터져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의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그의 백성은 유배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사야 49

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며 회복시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0장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부를 읽었지만,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떠오른다. 3절,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새벽의 밝음으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네 주위를 둘러보라.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오라.

네 아들들은 멀리서 오고, 네 딸들은 엉덩이에 업혀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바라보고 빛날 것이요, 네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부풀어 오를 것이다. 바다의 부가 네게로 가져올 것이요, 민족들의 부가 네게로 올 것이다.

60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지만, 이사야 60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읽고 싶지는 않지만, 에스겔 36장과 37장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맥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텍스트 중 일부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언어와 주제를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6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행동으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내 눈에 여자의 월경 부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분노를 쏟았습니다.

19절, 나는 그들을 흘었고, 그들을 심판했다. 19절, 22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권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23절,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위대한 이름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열국은 내가 주임을 알 것이다. 주권자 주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데리고 나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자 새 언약 본문이 물을 뿌려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다.

28절,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 풍부하게 하며, 너희에게 기근을 가져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무와 곡식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사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와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미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함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노라. 주권자이신 주께서 선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합쳐지고, 살이 그 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그분의 언약의 영을 그 뼈들 속으로 불어넣는다는 은유를 통해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도 언약의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37장 24절에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바르처럼 죄로 인해 유배되어 흩어진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모으실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으시고,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았는데, 다시는 돌아가서 읽지 않겠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땅으로 데려와서 그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텍스트들 중 여러 텍스트, 특히 예레미야 31장 텍스트와 에스겔 텍스트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예언적 텍스트에서 북쪽과 남쪽 왕국이 합쳐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북 왕국과 유다의 남 왕국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즉 북 왕국과 남 왕국 모두에게 그의 약속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두 왕국으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예언적인 이스라엘의 왕과 예배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들이 회복될 때를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두 민족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합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본문을 지적할 수 있지만 예언적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그의-언약 관계에 들어가실 때를 일관되게 예상합니다. 그때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성취였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에 더하여 그 맥락에서 우리는 또한 이방인을 포함할 것이라는 수많은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 퍼뜨리는 것이었던 곳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대한 출발점은 창세기 12장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땅에서 데려다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그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 문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적 본문에서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본문이 이방인을 포함할 것을 예상하는 곳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와 그에게서 나올 이 위대한 민족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와 그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본문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리는 이미 이사야 2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2장에서 저자는 시온이 회복될 때 모든 민족이, 그가 말했듯이, 주님의 성전의 산들이 굳건해지고, 언덕들 위로 높이 들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이 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는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이사야가 신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이사야는 구원에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말론적 구원에 이방인을 돌이키는 것을 예상하거나 강조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묶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외국인들을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올 것이요, 내가 기도의 집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제사는 내 제단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니,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 주께서 선언하시되, 이스라엘의 유배자들을 모으시는 이여,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외에도 그들에게 더 많은 자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데려오실 때를 특별히 기대합니다.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고, 나라들이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새 언약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도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에스겔 36장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맥락에 있습니다. 23절은 명백하게 민족들의 구원, 즉 우리가 이사야 2장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민족들 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주목하세요.

하지만 에스겔 36:23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나의 위대한 이름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그 이름이다. 그러면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선언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거룩함이 증명될 때, 우리는 이미 이사야 60장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들의 땅으로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이사야 60장을 살펴보고, 또한 여러 민족을 포함하는 것, 여러 민족이 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사야서에서 그림은 다양합니다.

때때로, 열국은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방식에 참여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사야 2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와 심지어 에스겔 36장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들에게 가져다주실 구원에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어 그들을 데려올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역할을 하는 다른 두 본문은 다니엘 7장과 14절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두 본문은 다니엘 7장과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옛날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면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의 왕국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스가랴 14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언급할 마지막 내용이지만,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14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다루는 본문인데, 스가랴 14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가져오는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살펴보면, 다른 주제들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배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약속, 즉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모든 민족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남겨둡니다.

이제 질문은 끝납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약 주제의 시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신약 발전을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로 끝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다시 말해,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 몇 가지는 이미 새 언약과 관련하여 언급했지만,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고전적 경륜주의로 알려진 것입니다.

고전적 분배주의는 역사적 형태로, 고전적 분배주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사이에 상당한 불연속성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지 않았고, 둘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문자 그대로 주어진 조건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혼동해서는 안 될, 다른 무언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적인 약속, 용서와 구원의 약속 등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민족적으로 정의되고 혼동해서는 안 되며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분리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경륜주의 내에서 이해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분배주의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배주의자들은 더 많은 연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국가적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연결되어 있으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의

이스라엘 사이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어떤 불연속성을 여전히 유지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다른 운동은 종종 대체 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사람들이 대체 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순종 거부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예언적 기대가 이제 교회,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들은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종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종의 대체 신학을 옹호합니다.

그 두 극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므로, 저는 질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신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약의 이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종종 교회라고 불리는 것과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약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출발점은 우리가 다른 대부분의 성경적-신학적 주제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하고, 세우고, 창조하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구체화하신 분으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시작점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장을 전부 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 이야기를 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물론 크리스마스 때면 많이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 장에는 실제로 많은 내용이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몇 가지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구절은 읽지 않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의 유아기입니다. 2장은 예수가 태어난 직후 유아기에 있었던 예수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예수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거의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를 들어, 예수가 태어난 후, 예수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나왔고, 2장 15절에서 그 인용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우리는 또한 헤롯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죽이려고 2세 이하의 모든 아기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1장에서 요셉은 예수를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일종의 새로운 모세가 되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실 모세처럼, 외국의 통치자가 그를 죽이고 파괴하려 하고 파라오가 한 것처럼 모든 아기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와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인용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문자 그대로 이집트에서, 호세아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부르신 것을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은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연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반복하고 되뇌고 연습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 구원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의 한 유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외국 통치자의 죽음의 위협을 피한다. 이번에는 파라오 대신 헤롯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확실히 잡기 위해 모든 아기 소년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집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뇌는 것으로 분명히 보인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40일 40박을 금식하신 후 배가 고프셨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그에게 왔고, 악마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은 이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자 사탄은 그를 높은 성전, 성전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은 그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네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제, 이 본문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뇌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는 아담과 이브의 역사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주목하세요. 시험이나 유혹과 죄와 유배의 패턴을 다시 주목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 의해 에덴동산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추방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것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마찬가지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고, 그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예수께서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가 하지 못한 것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성취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유혹에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유혹, 시험, 광야에서의 방황과 관련된 40일 40박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또한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들이었고, 이제 예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지막 것은 예수가 유혹을 받았을 때 인용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유혹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제안 이상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죄로 인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셨고,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는 시험에 통과했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점은, 제 생각에,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과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성취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과 성취를 찾았으므로,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복음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예수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어떻게 성취되는지 에 대한 신약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새 언약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션 12 입니다.